日帝의 수탈 前衛隊로

挺身隊歌보급 「조선연맹」실체

1992. 6. 27

신사참배·징용등 6년간 親日운동 주도

尹致昊·張德秀등 지도층 대거참여 "충격"

「국민총력조선연맹」은 1940년대 皇民化 신사참배 징병·징용을 비롯한 당시의 모든 친일운동을 주도하면서 2천6백만 우리 민족을 일제의 제물로 바치는데 6년동안 앞장섰던 대표적 단체다.

이 단체에는 尹致昊、張德秀、金活蘭、金性洙、方應模、兪鎭午씨등 일반에게 독립운동가 민족자본가 교육자 민족언론인등으로 알려진 당[redacted]·사회·경제·문화계 [redacted]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선연맹은 강령에서 『…內鮮一體를 고양하고 각 직장과 지역에서 멸사봉공의 정성을 다하며 모든 [redacted]로 이뤄졌다.

특히 지방조직의 경우 대략 10가구 단위로 애국반이 조직돼 한반도 전역을 [redacted]

강화해야 할 절박감에 직면하자 1940년 10월16일 한반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內鮮一體를 다지기 위한 전위대로 기존의 정동연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조선연맹을 결성했다.

총독부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한 지도위원회가 연맹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강요등 한반도에 대한 수탈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

조선연맹이 1942년 5월9일 징병제실시 발표에 즈음해 채택한 선언문을 보면 이 단체가 [redacted]…등 한반도를 일제의 부속도서쯤으로 전락시키고 [redacted]

지키는 요충지다. 밤낮없이 지혜와 솜씨를 개발해 자원으로 쌓아올리는 힘, 그것이 연맹의 대사명이다』등 한반도를 일제의 부[redacted]

일본인이 맡았고 이사 참사를 포괄하는 방대한 단체였다.

이 이사를、金活蘭 張德秀씨등 17명이 참사를 맡았다.

일제는 이 조직을 통해 황민정신의 앙양、징병·학병의 독려、증산 헌금 공출 강요등 한반도에 대한 수탈 움변해주고 있다.

5구절로 된 조선연맹 행진가는 『…우리반도는 대연맹에 쌀소비규정과 적극적인 공출실시、군용·비료륙의 병참기지다。동양을 마지않는다。우리는 더욱 보국대강연회에서의 尹致昊씨를 포함한 몇몇 인사들의 연설은 일본인을 무색케 할 정도로 강도 높게 일제를 추켜세우는 것이었다。

이 단체는 수시로 하부조직에 지시사항도 하달했다。

일례로 조선연맹 사무국장은 41년 8월12일 각 도에 평생을 바치다 89년 타계한 林鍾國씨의 유지를 이어 친일 매국등 반민족범죄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少壯연구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일제의 민족분열정책및 식민이론 친일행위의 유형및 구조、친일·친미행위의 중첩성、미군정하 실용주의와 봉건잔재의 결합과정、친일행위에 대한 민중의 저[redacted]별 일제잔재등이 관[redacted]게 연구되고 있다。

반민족문제연구소

「한국 근현대사 전반에서 나타난 반민족행위의 규명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정기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2월 발족한 역사연구단체。

이 연구소는 친일파연구에 평생을 바치다 89년 타계한 林鍾國씨의 유지를 이어 친일 매국등 반민족범죄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少壯연구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일제의 민족분열정책및 식민이론 친일행위의 유형및 구조、친일·친미행위의 중첩성、미군정하 실용주의와 봉건잔재의 결합과정、친일행위에 대한 민중의 저[redacted]별 일제잔재등이 관[redacted]게 연구되고 있다。